

美 한국 등 57개국 상호관세 발효

원화값 16년來 최저 韓 경제전망 줄하향

트럼프 발(發) ‘관세 전쟁’ 여파에 원화값이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관세 전쟁 확산 우려에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팔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불가피해졌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 원화, ‘독보적 약세’

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율은 달러당 1484.1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일 주간 거래 종가인 1473.2원보다 10.9원(0.74%) 올랐다.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지난 2009년 3월 13일 이후 16년 만에 최고(원화 가치 최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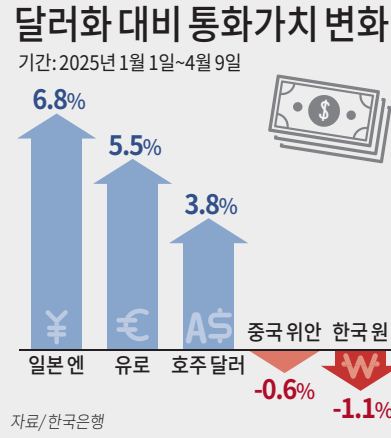
달러 가치 대비 원화 가치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통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연초보다 6.8% 상승했다. 유로화도 5.5% 올랐다. 호주 달러도 3.8% 비싸졌다. 반면 위안화는 0.6% 하락했는데, 같은 기간 원화의 낙폭은 1.1%를 기록해 위안화보다도 하락폭이 컸다.

트럼프發 전세계 보호무역 확산
수출 의존도 큰 韓 타격 불가피
타 통화 대비 원화 약세 뚜렷
對中 무역축소 압박 가능성도

타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달러 인덱스는 지난 8일 102.701까지 내렸다. 트럼프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올해 초 달러 인덱스는 109.209에 달했다. 달러 가치 하락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것은 원화가 타 통화와 비교해 크게 약세라는 의미다. ◆ ‘관세전쟁’, 한국경제 타격 ‘불가피’ 원화가 타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는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확산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해외 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기 쉽다.

트럼프는 지난 2일(현지시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10%의 보편 관세와 57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 관세(개별 관세)로 구성된 대규모 관세 정책을 공표했다. 보편 관세는 5일, 상호 관세는 9일 시행됐다.

보편 관세는 대(對)미 무역 흑자액 규모가 큰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한국은 25%, 일본은 24%, 유럽연합(EU)은 20%, 대만은 32%의 관세를 적용 받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중국에 54%의 관세를 적용했지만, 중국이 34%의 관세로 ‘맞불’ 대응에 나서자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04%로 인상했다.

트럼프는 미국으로부터 수입 규모를 늘릴 경우,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그러나 최저 10%의 보편 관세는 여전히 적용되는 만큼, 전 세계에서 보호무역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유럽연합(EU)은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철강 제품의 과도한 유입을 막고자 ‘셰이프 가드(국가별 수입 할당량)’를 이달 들어 15% 감축했다.

보호무역이 확산하면 전체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한국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한국의 총수출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6838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도 35.7%에 육박했다. 한국과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20% 이하다.

한국의 주요 무역국 가운데 흑자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다. 흑자액 상위 20개국 가운데 28.2%를 미국이 차지한다. 트럼프가 막대한 대(對)미 흑자액을 이유로 관세를 압박 중인 만큼,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 국내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한 트럼프는 지난 2월 캐나다와 멕시코를 중국의 우회 수출 경로로 지목하고 중국과의 무역 축소를 압박한 바 있다. 한국을 향해서도 대(對)중 무역 축소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물품은 약 1400억 달러 규모로, 수입의 22.1%를 차지했다. 수입액 2위·3위인 미국과 일본을 합한 것보다 많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5.7조 규모 ‘꿈의 소재’ 유리기관 선점 경쟁 (2034년)

고온에 변형적어 미세 회로구현 유리 삼성전기, 세종 파일럿 생산라인 구축 SK 애플릭스, 작년 美 생산공장 완공 LG이노텍도 핵심공정장비 발주 시작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반도체 핵심 소재로 떠오른 유리기관을 둘러싸고 삼성, SK에 이어 LG까지 가세하며 국내 3사의 기술 선점 경쟁이 본격화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유리기관은 반도체 칩이 실리는 기관을 기존 플라스틱 계열의 유기기관 대신 유리로 대체한 것이다. 유리는 열에 강하고 표면이 평탄해 고온에서도 변형이 적어 미세 회로 구현에 유리하다. 실제로 유리기관을 사용하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

면서 전력 소모는 줄일 수 있어 ‘꿈의 기관’으로 불린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관심도 뜨겁다. 인텔, 엔비디아, AMD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차세대 제품에 유리기관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속속 공개하고 있다. 실제로 인텔은 2030년까지 유리기관을 적용한 상용 제품 출시를 예고했다. 시장조사업체 인사이트파트너스는 “유리기관 시장이 올해 약 2300만 달러(약 316억원)에서 2034년 42억달러(약 5조 7천억원)로 성장할 전망”이라면서 “시장 잠재력은 이미 확인돼 수익성은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삼성전기가 가장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기는 세종 사업장에 유리기관 파일럿 생산라인

을 구축하고, 이르면 2분기 중 시제품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지난 1월 열린 CES 2025에서 “올해 반도체 유리기관 샘플(시제품)을 프로모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SK는 SKC 자회사 애플릭스를 통해 미국 조지아주에 유리기관 생산 공장을 지난해 완공했다. 현재 시제품 생산과 고객사 평가를 진행 중이며,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후발주자인 LG이노텍도 최근 본격 참전을 선언했다. 최근 경북 구미 공장에 유리기관 시험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핵심 공정 장비 발주를 시작했다. /이혜민 기자 hyem@



코스피 2300대 붕괴

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취재진들이 증시 지수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2334.23)보다 40.53포인트(1.74%) 하락한 2293.70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658.45)보다 15.06포인트(2.29%) 떨어진 643.39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473.2원)보다 10.9원 오른 1484.1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뉴시스

관세 여진 대비… 정부, 10조 추경안 곧 제출

최상목 “추경, 타이밍 중요해
국회 조속한 논의·처리 부탁”

트럼프 발 ‘상호 관세’가 정식 발표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판단, 추가경정예산안을 10조원 규모로 편성해 곧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행정부가 57개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 9일 오전 0시 1분, 한국 시간 오후 1시 1분을 기해 발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산업·기술

경쟁 심화, 내수회복 지연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관세 폭풍’이라는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영향에 따라 제조업 등 수출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안에는 통상 환경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도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참석자들은 관세에 직격탄을 맞은 산업들의 수출 및 경

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관세대응을 위한 수출바우처를 1000억원 이상 증액하고 위기대응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며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구조적 개편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국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위기 대응 유탄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관세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도 15조원으로 확대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메트로 한줄뉴스



▲ ‘막차’ 타고 대구 간 이준석… “이재명 대권 목전… 이기는 선택 되겠다” /사진 뉴시스
▲ ‘진보 잠룡’ 김부겸, 대선 불출마 선언 “민주당 대선 경선에 불참”

▲ 법사위 ‘최상목 탄핵 청문’ 16일 실시기로… 국힘 “또 졸탄핵” 반발
▲ 이철우 경북지사 “이재명 이길 새 인물은 나”… 대선 출마 선언

▲ 안철수, 의대서 첫 대선 일정… “의료시스템 복구해야”
▲ 유승민 “尹 아바타 나오면 통하겠나… 100% 국민경선 해야”